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58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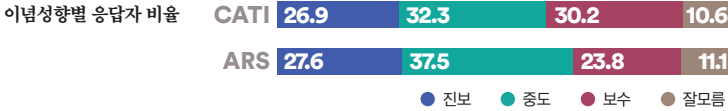
제73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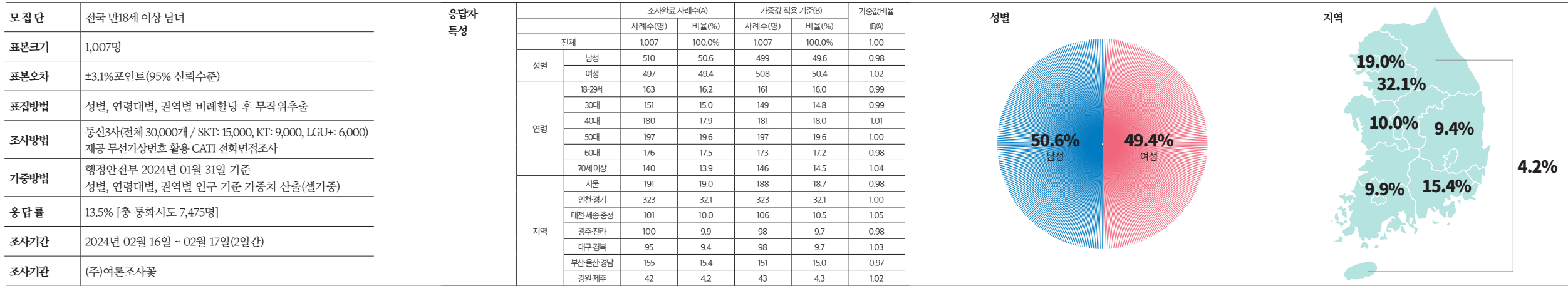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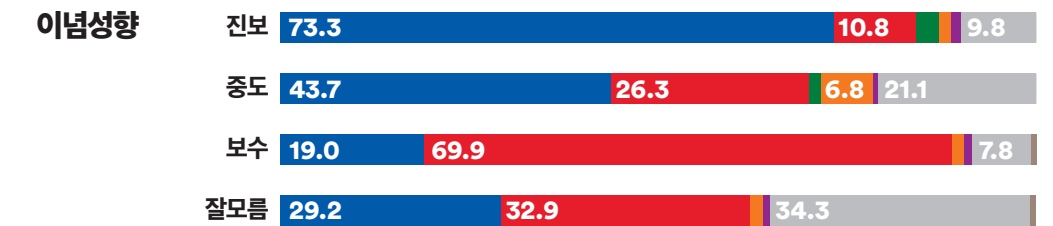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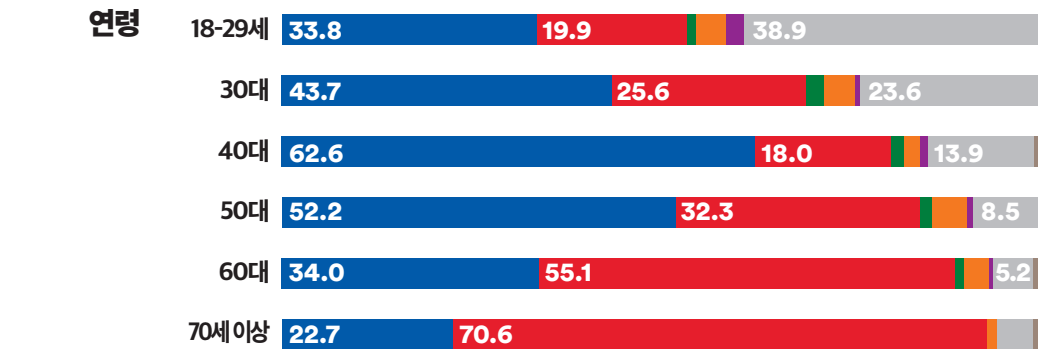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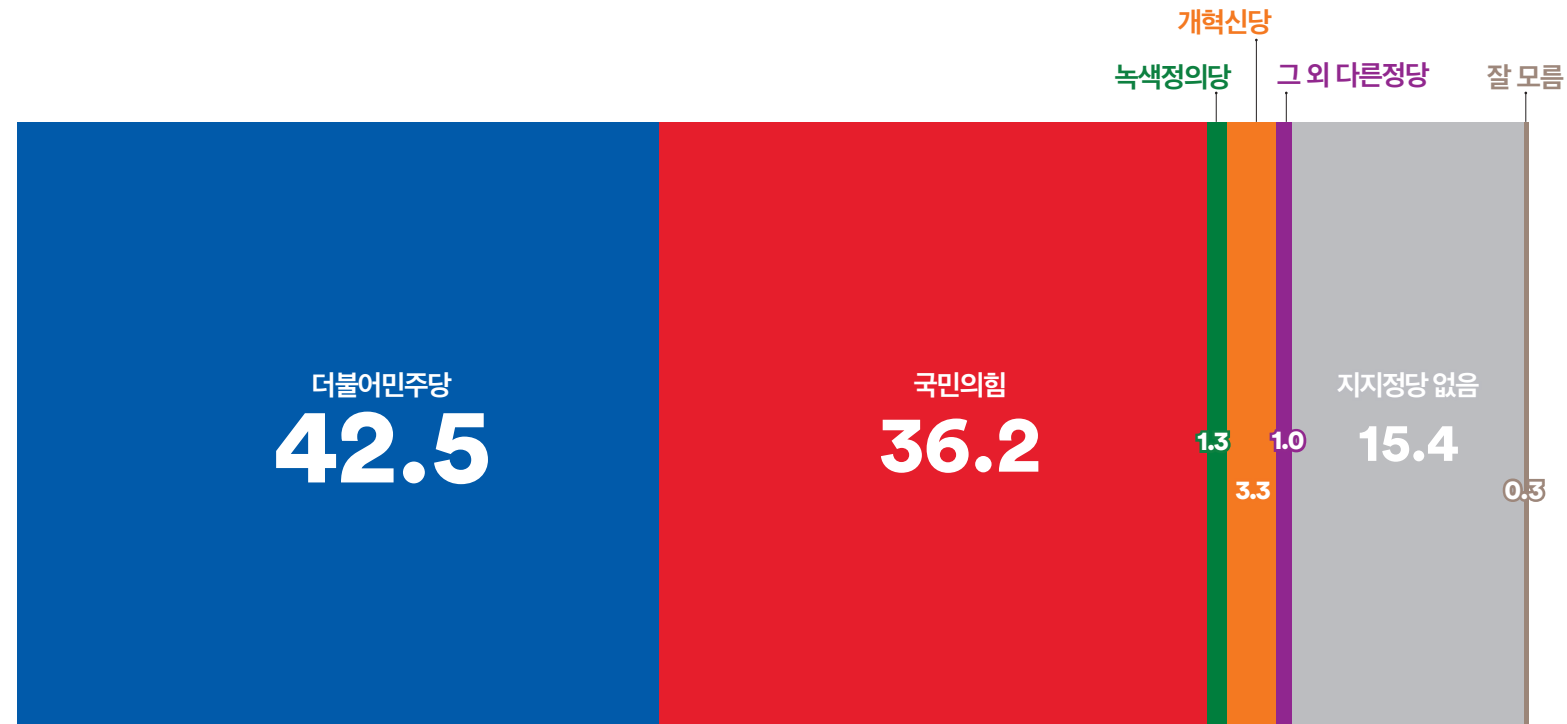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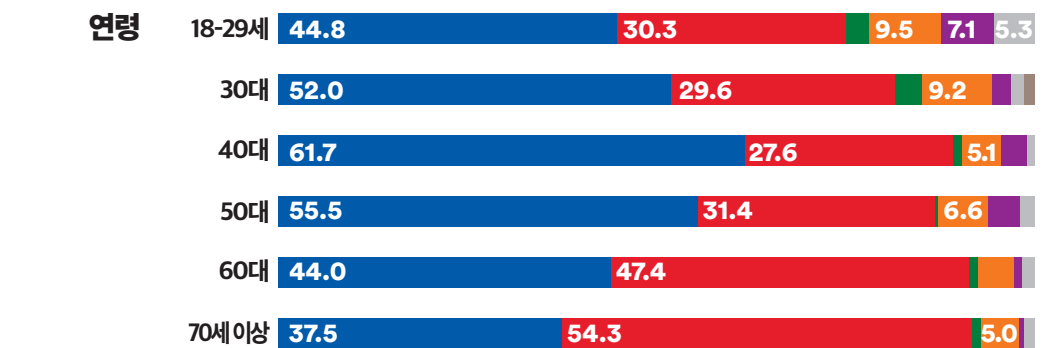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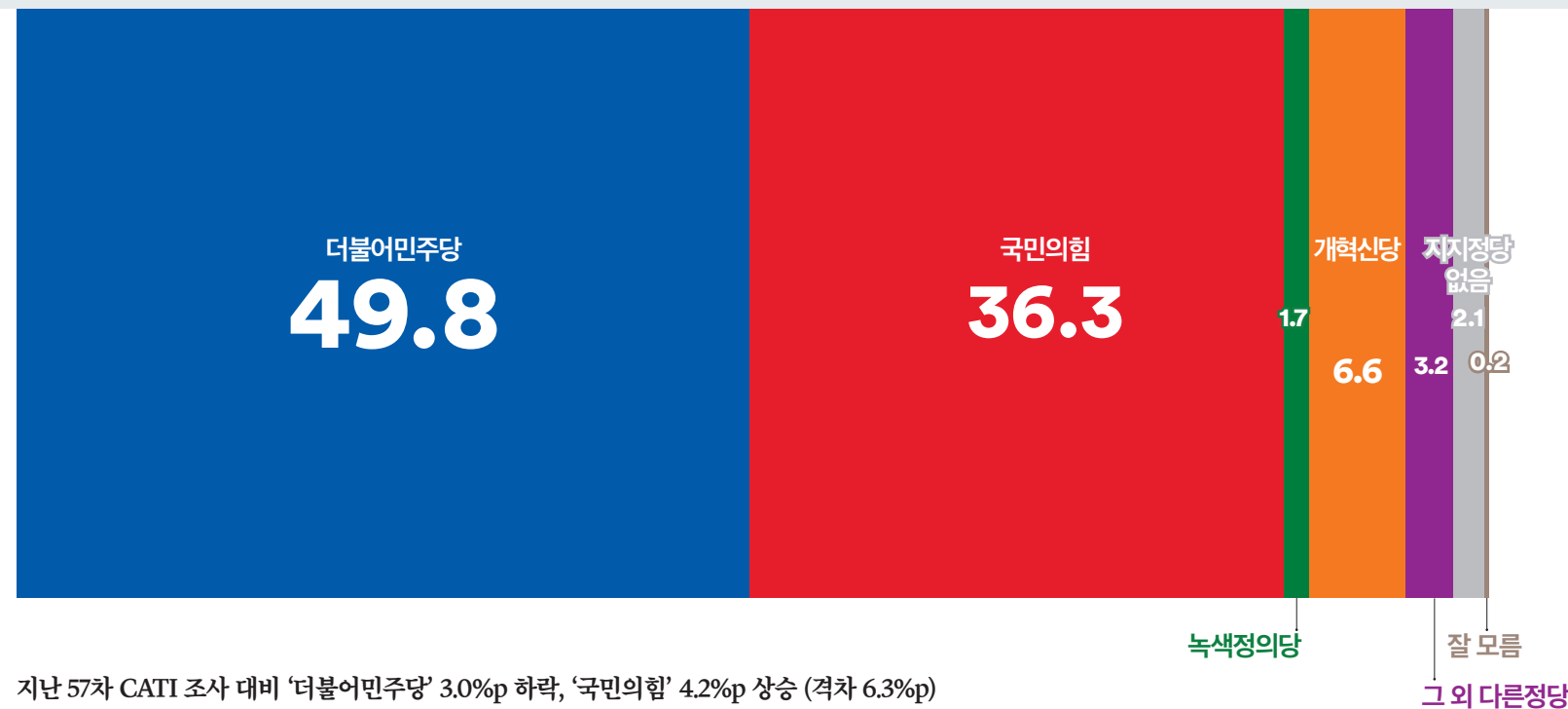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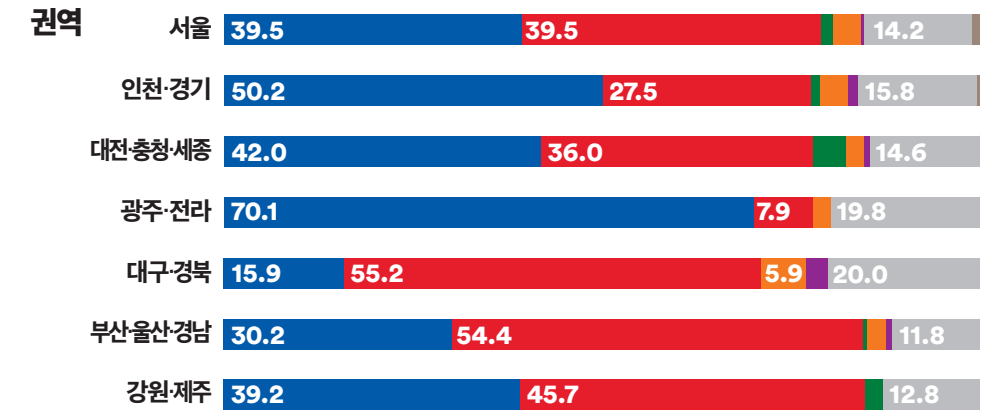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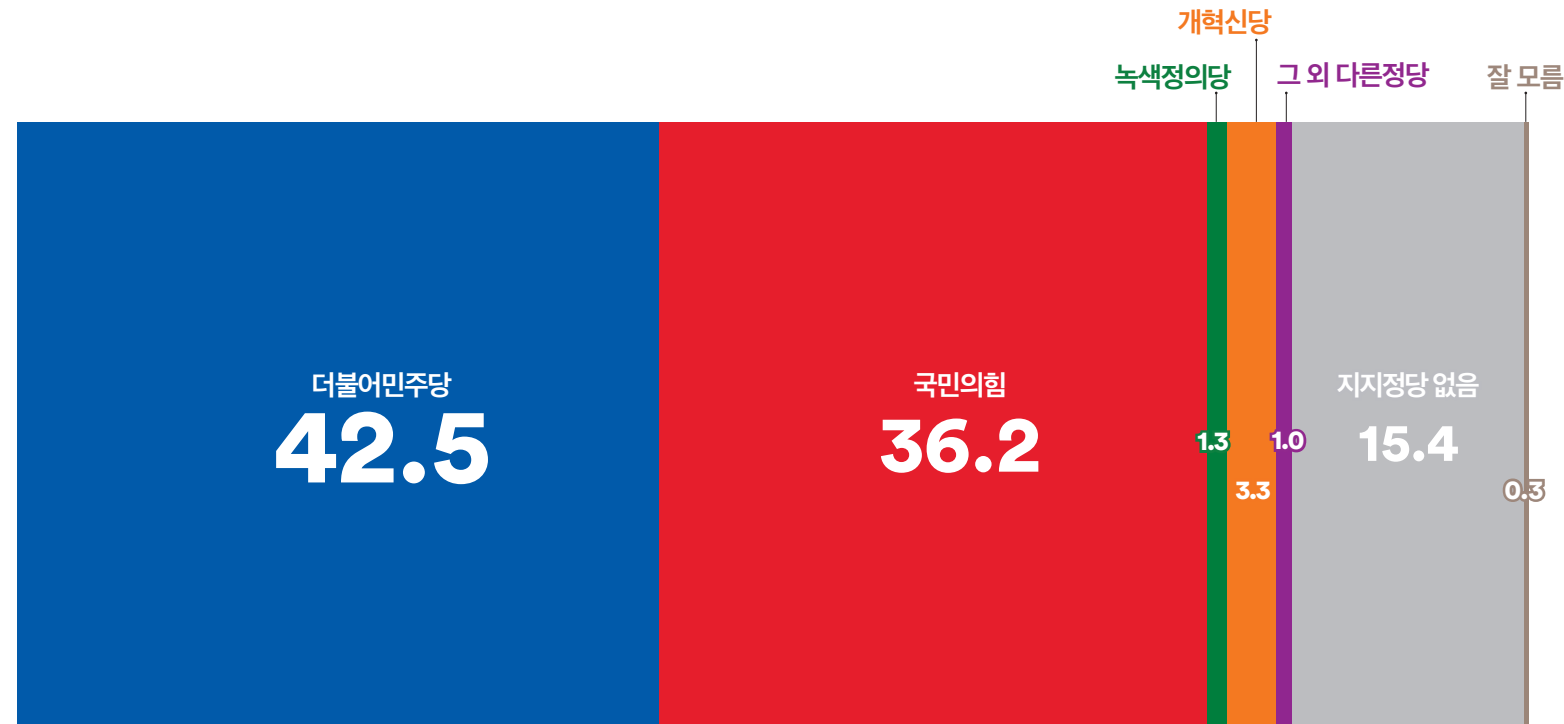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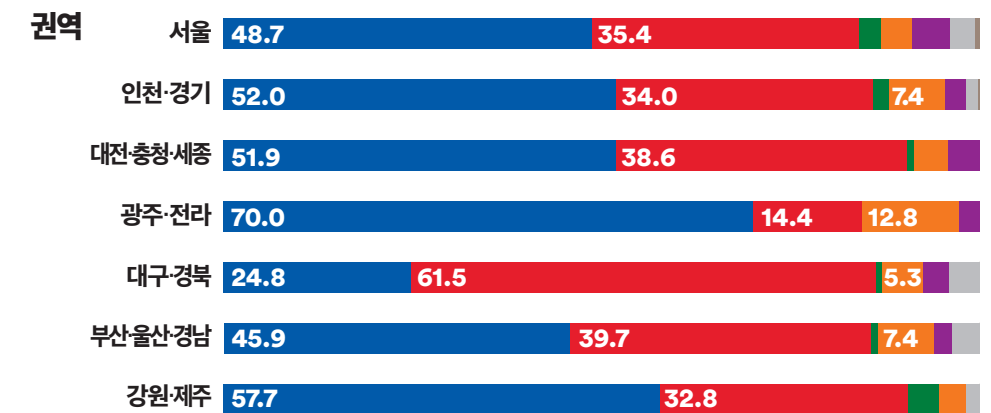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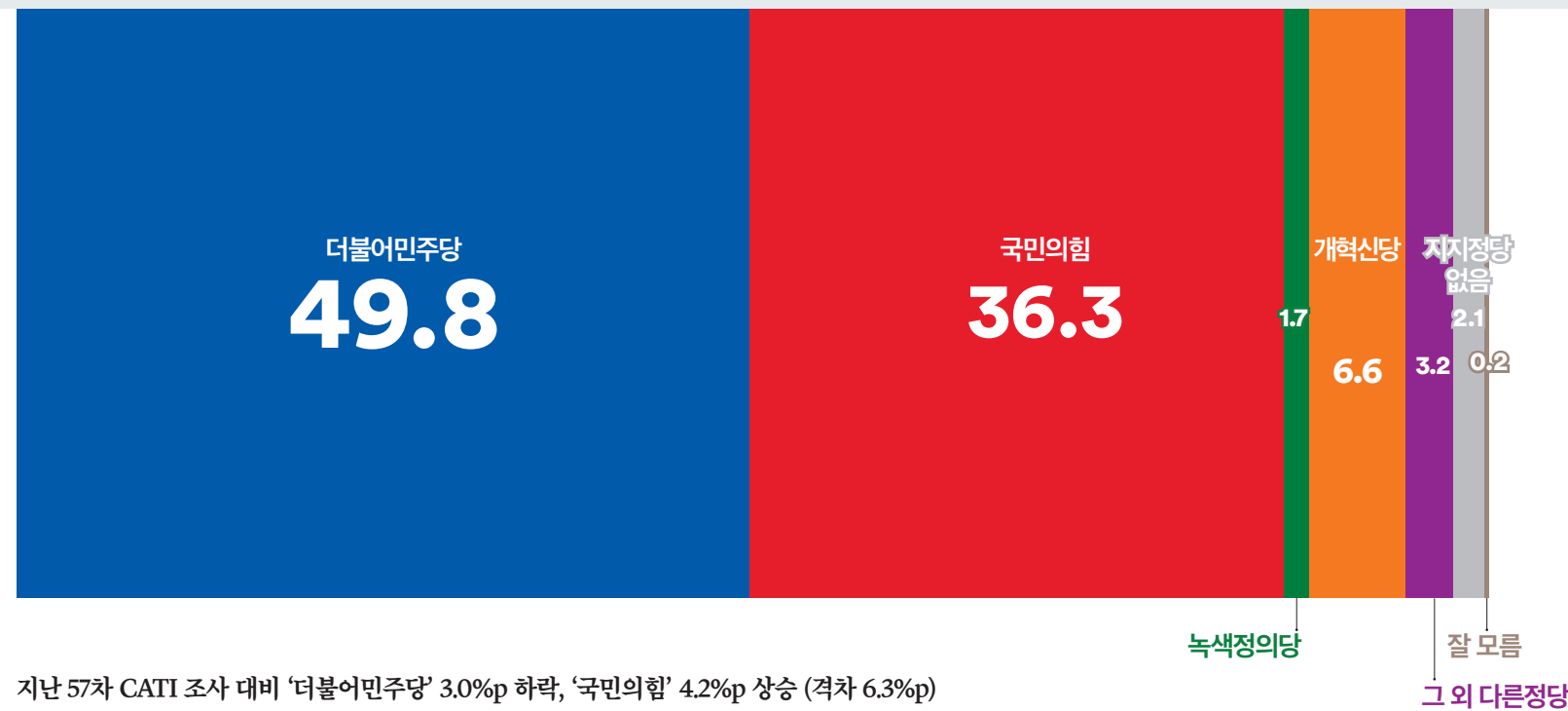
지난 57차 CATI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0%p 하락, '국민의힘' 4.2%p 상승 (격차 6.3%p)
 지난 72차 ARS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0.1%p 상승, '국민의힘' 2.0%p 하락 (격차 13.5%p)
 경인권, 호남권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. TK권 (CATI PK권 포함) 에서는 '국민의힘' 우세
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17.4%p(지난 조사: 19.6%p), ARS 7.8%p(지난 조사: 15.2%p)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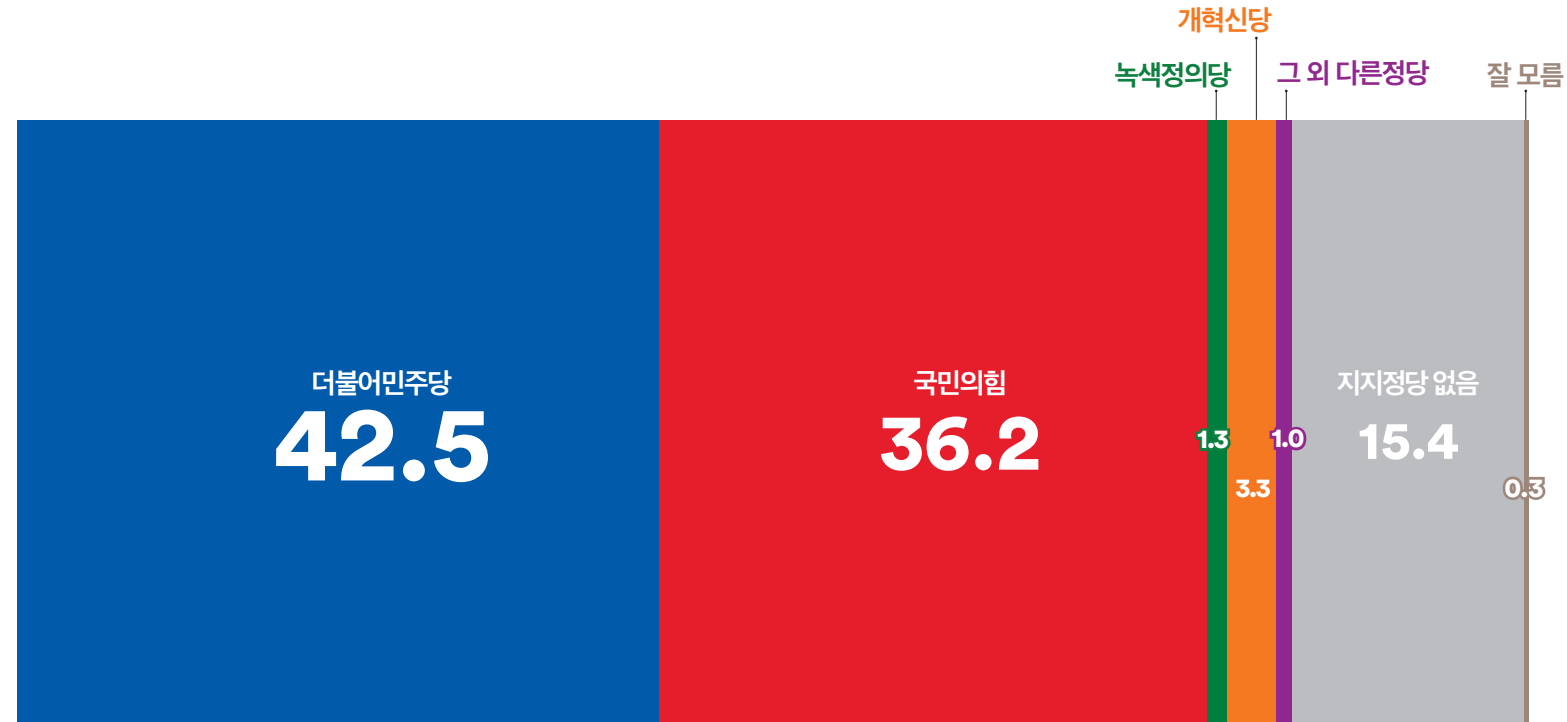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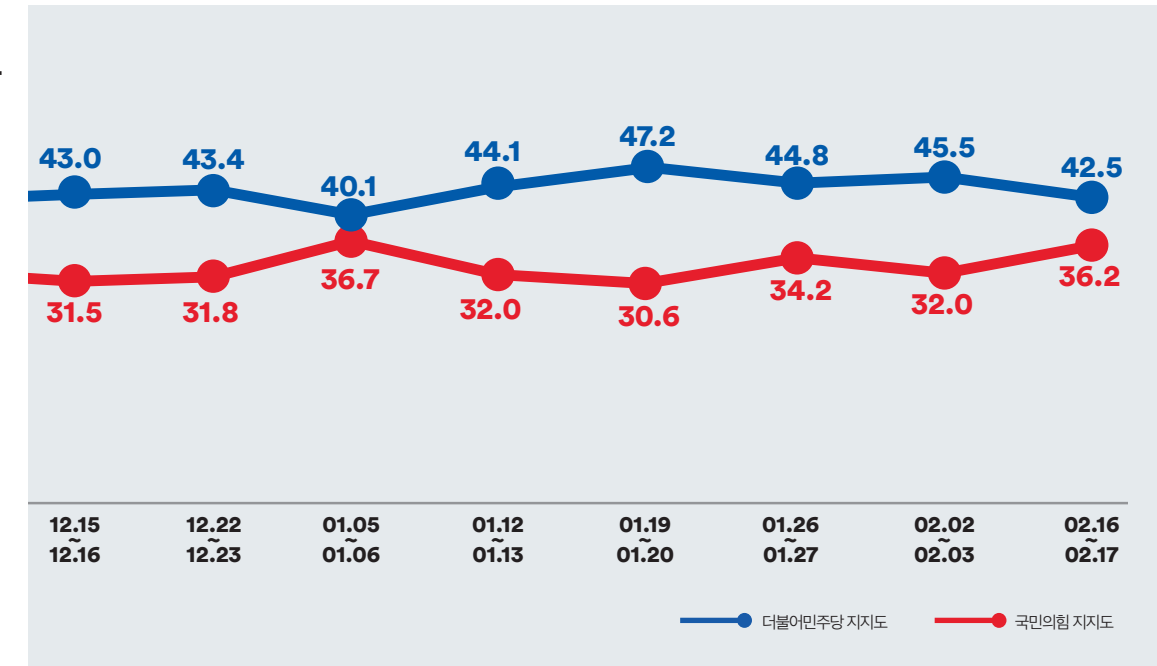
지난 57차 CATI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0%p 하락, '국민의힘' 4.2%p 상승 (격차 6.3%p)
 지난 72차 ARS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0.1%p 상승, '국민의힘' 2.0%p 하락 (격차 13.5%p)
 경인권, 호남권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. TK권 (CATI PK권 포함) 에서는 '국민의힘' 우세
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17.4%p(지난 조사: 19.6%p), ARS 7.8%p(지난 조사: 15.2%p)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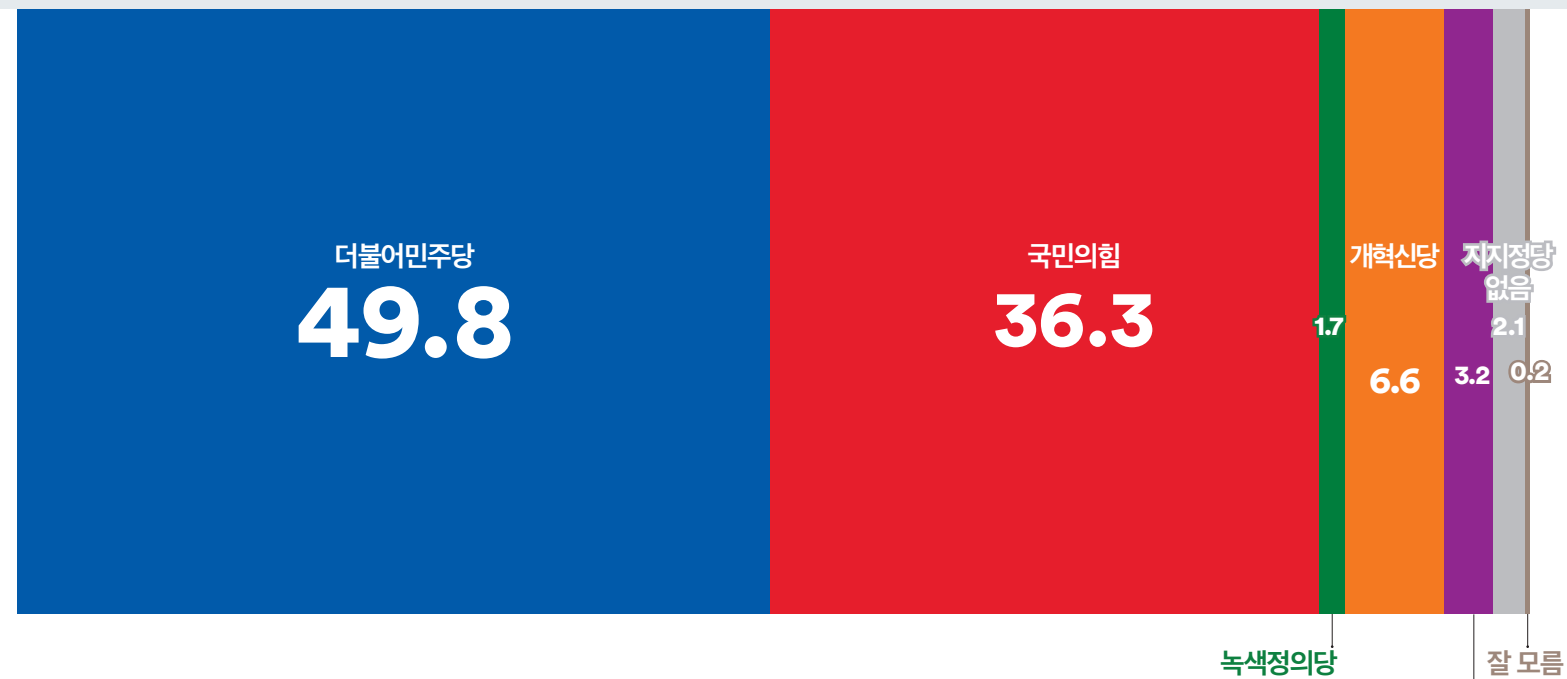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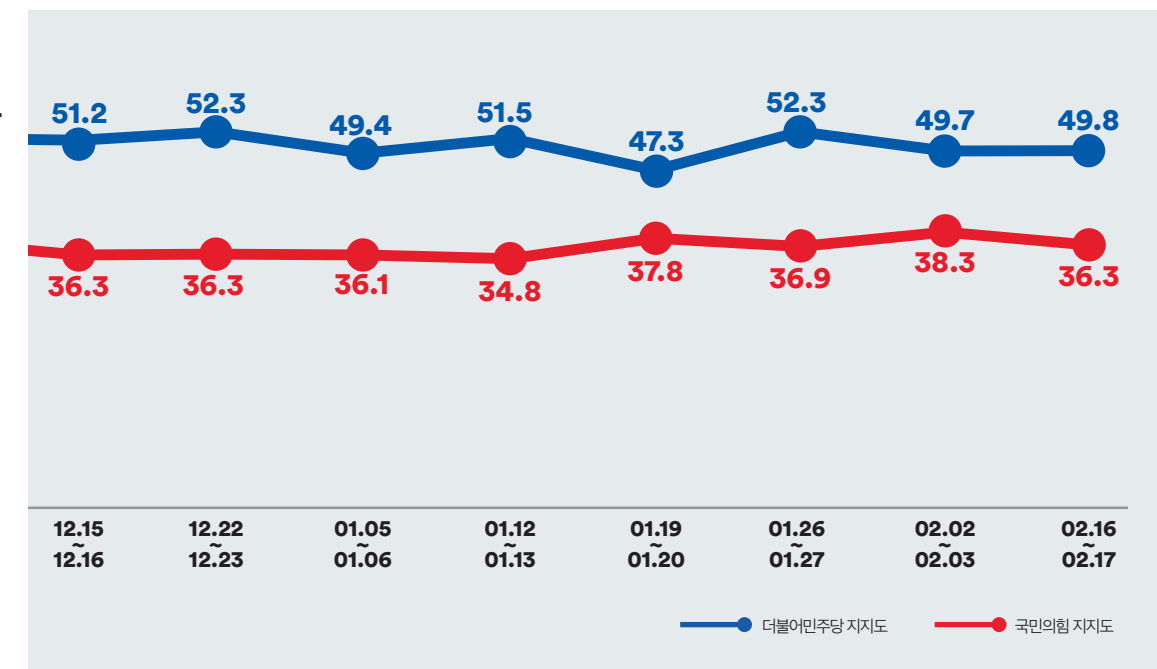
주차별 정당지지도



ARS



주차별 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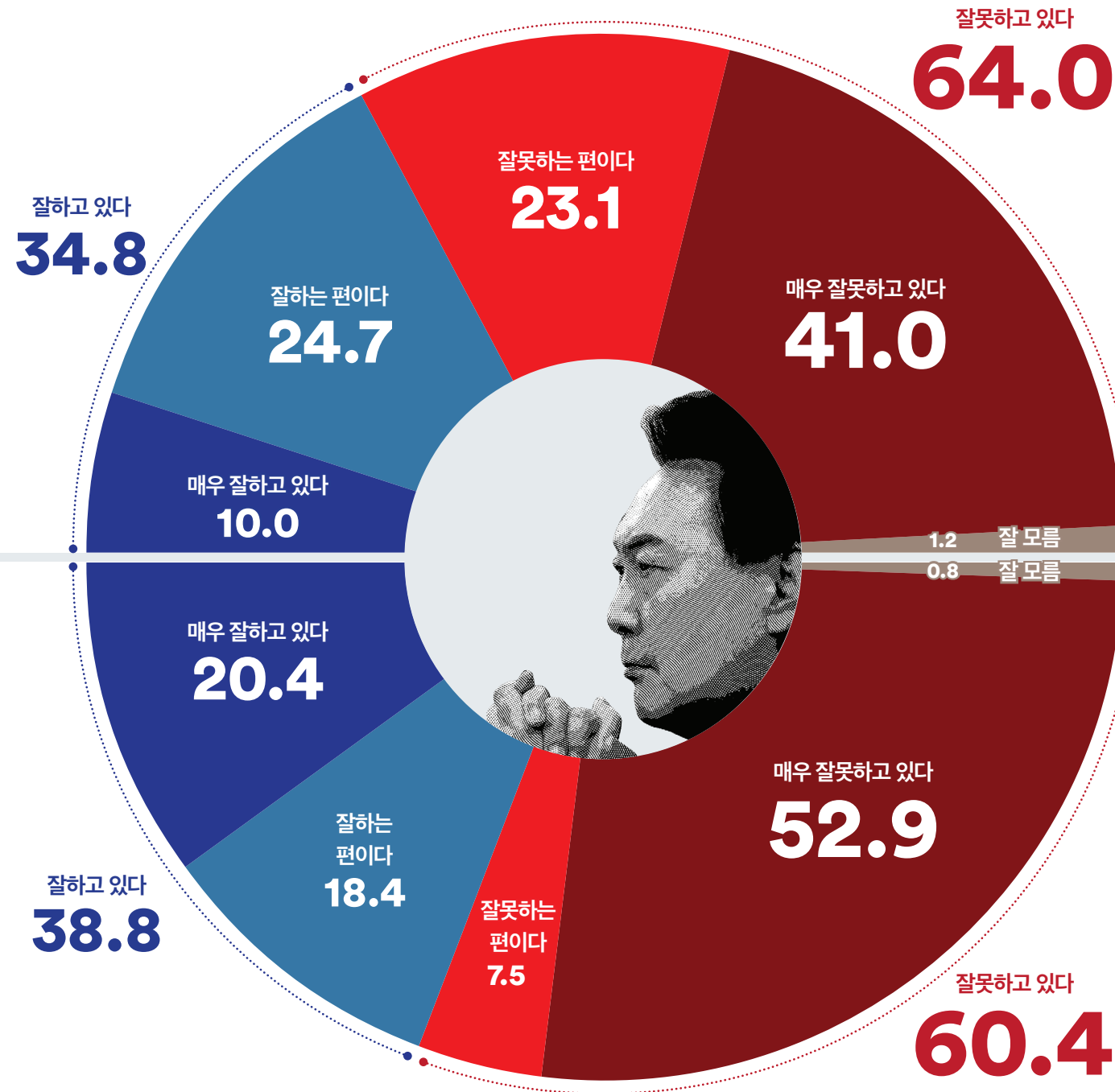


지난 57차 CATI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0%p 하락, '국민의힘' 4.2%p 상승 (격차 6.3%p)
 지난 72차 ARS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0.1%p 상승, '국민의힘' 2.0%p 하락 (격차 13.5%p)
 경인권, 호남권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. TK권 (CATI PK권 포함) 에서는 '국민의힘' 우세
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17.4%p(지난 조사: 19.6%p), ARS 7.8%p(지난 조사: 15.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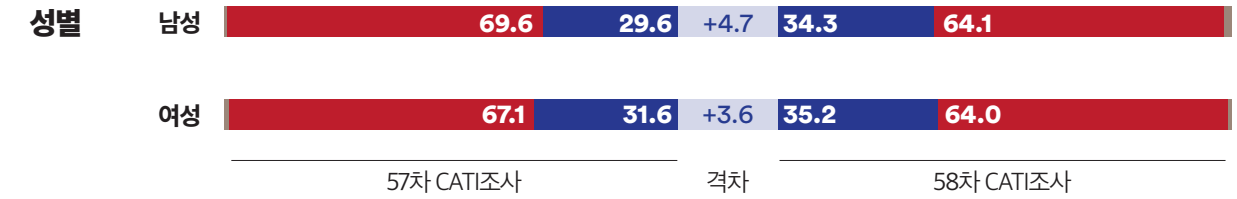
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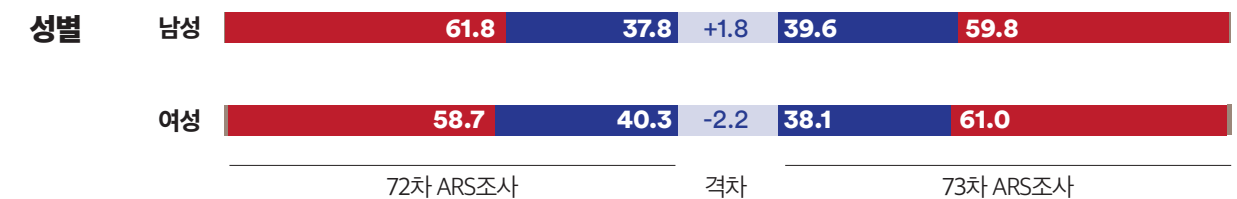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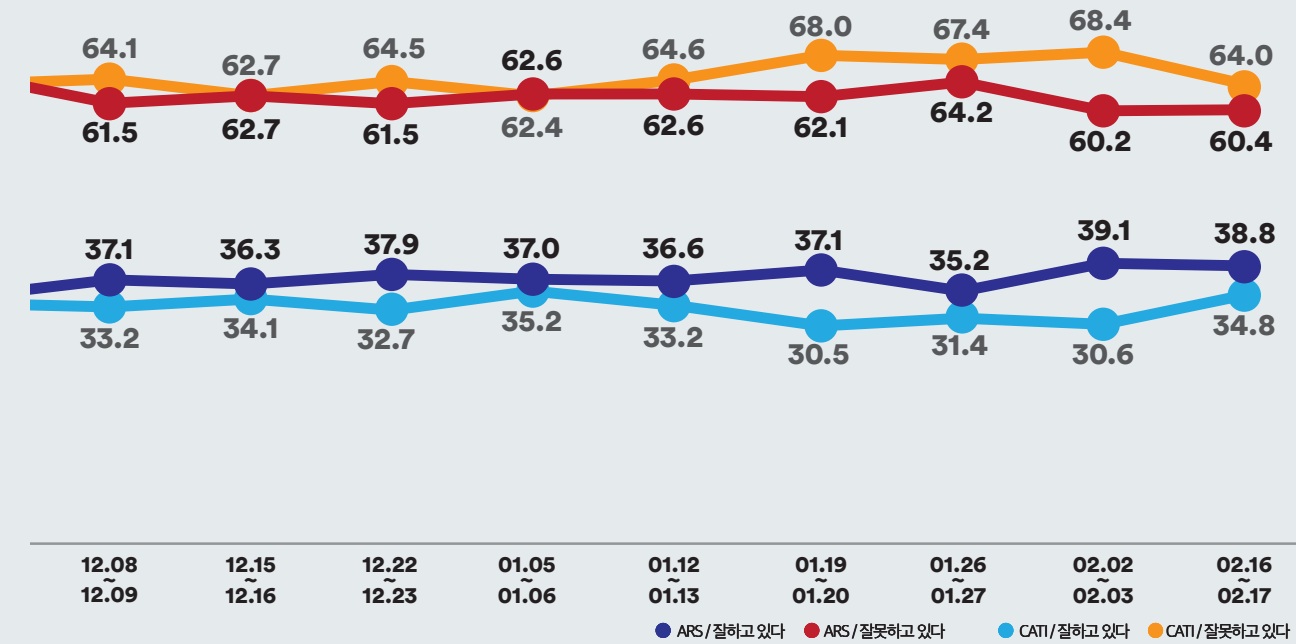
CATI



지난 57차 CATI 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4.2%p 상승, '부정' 평가 4.4%p 하락 (격차 39.2%p)
 지난 72차 ARS 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0.3%p 하락, '부정' 평가 0.2%p 상승 (격차 21.6%p)
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은 '부정' 평가 우세, 70세 이상은 '긍정' 평가 앞서거나 우세
 중도층의 긍·부정 평가 격차는 CATI 51.1%p(지난조사: 51.1%p), ARS 19.7%p(지난 조사: 29.4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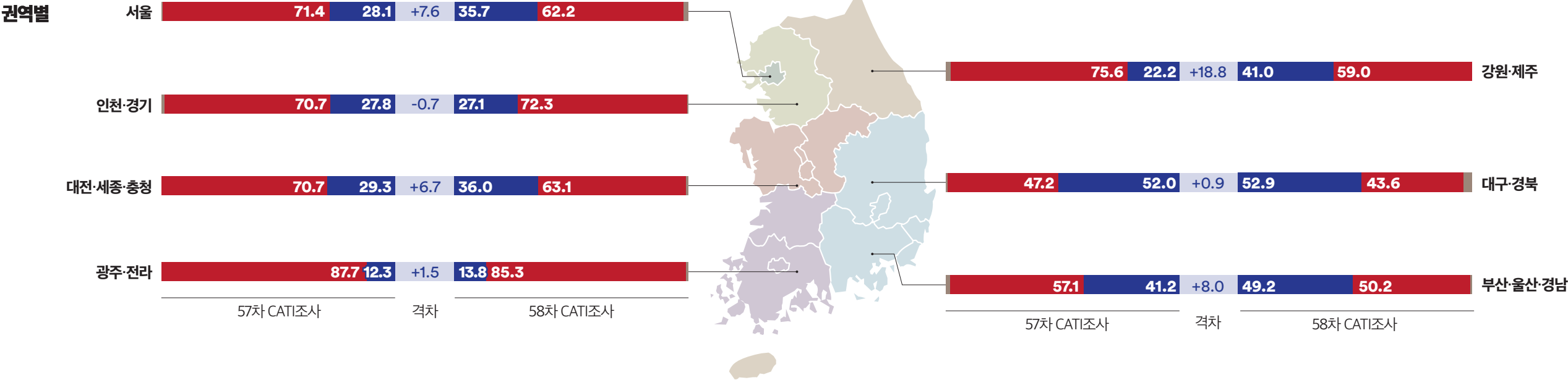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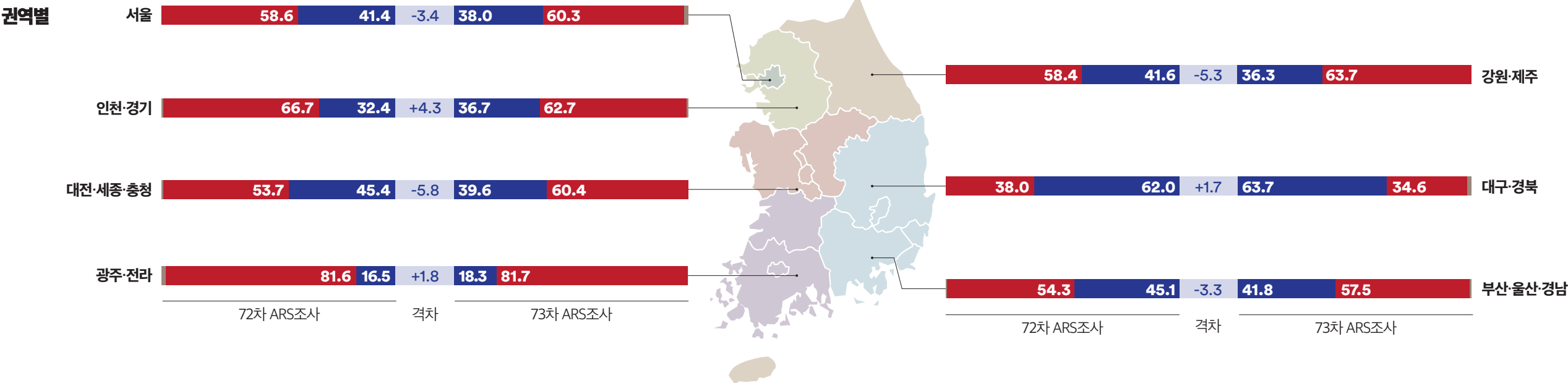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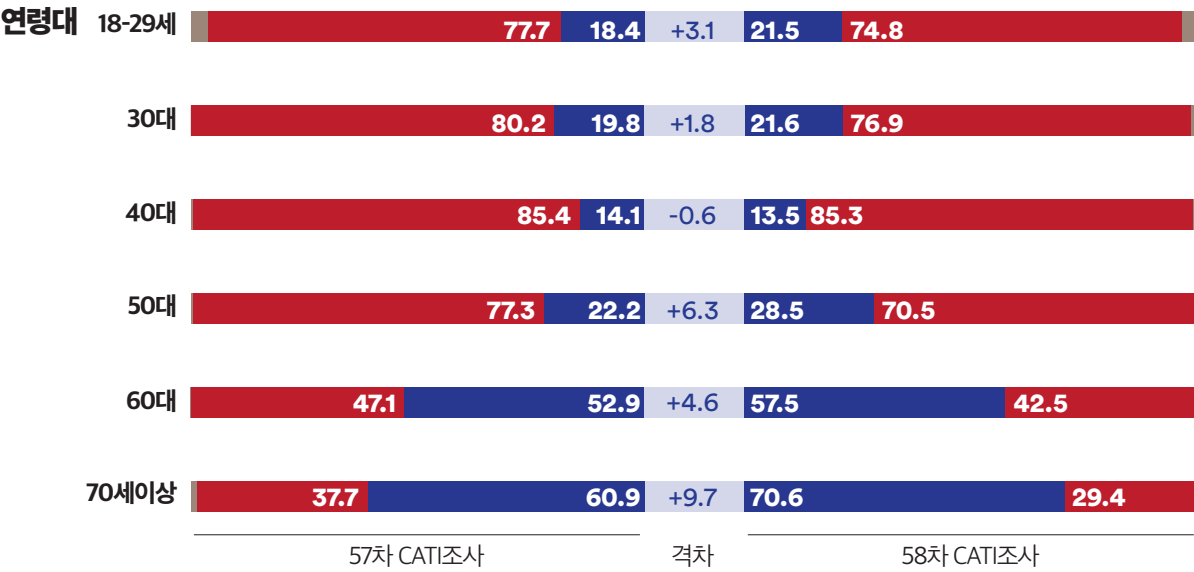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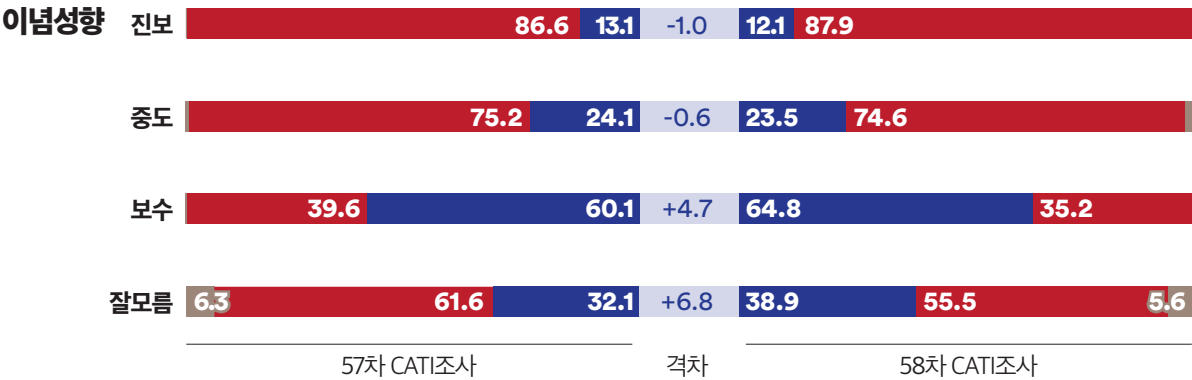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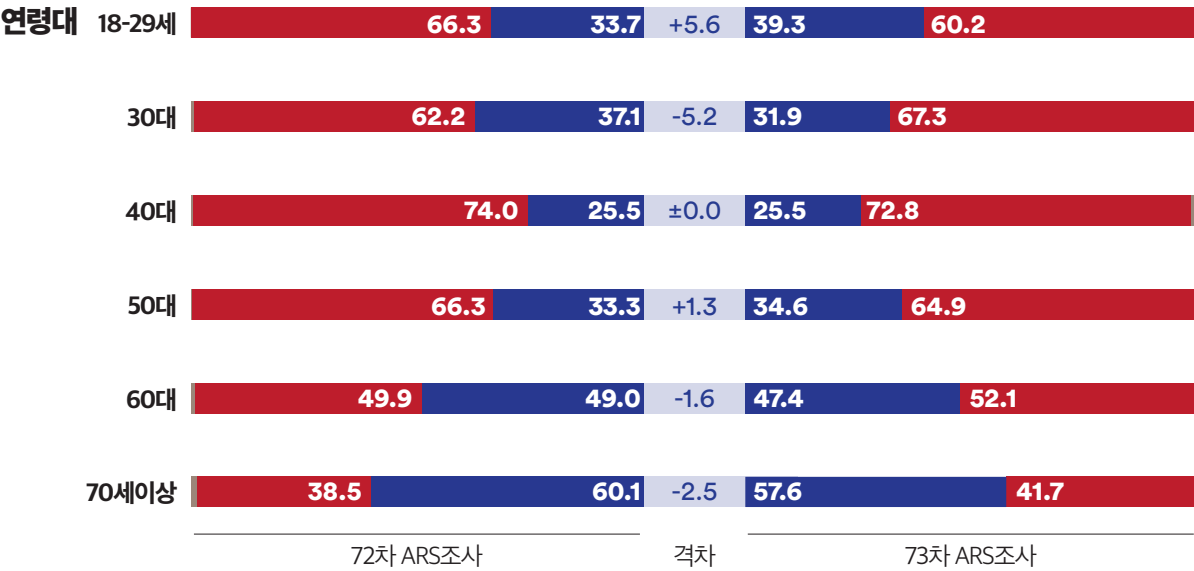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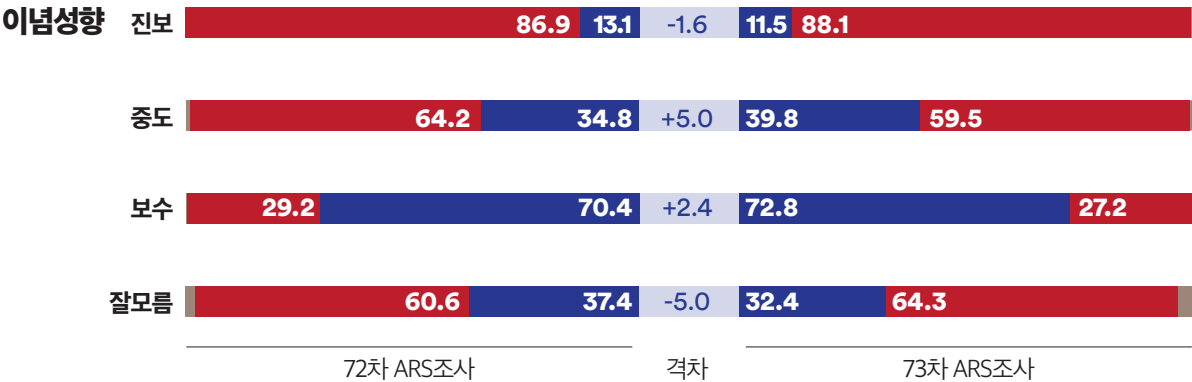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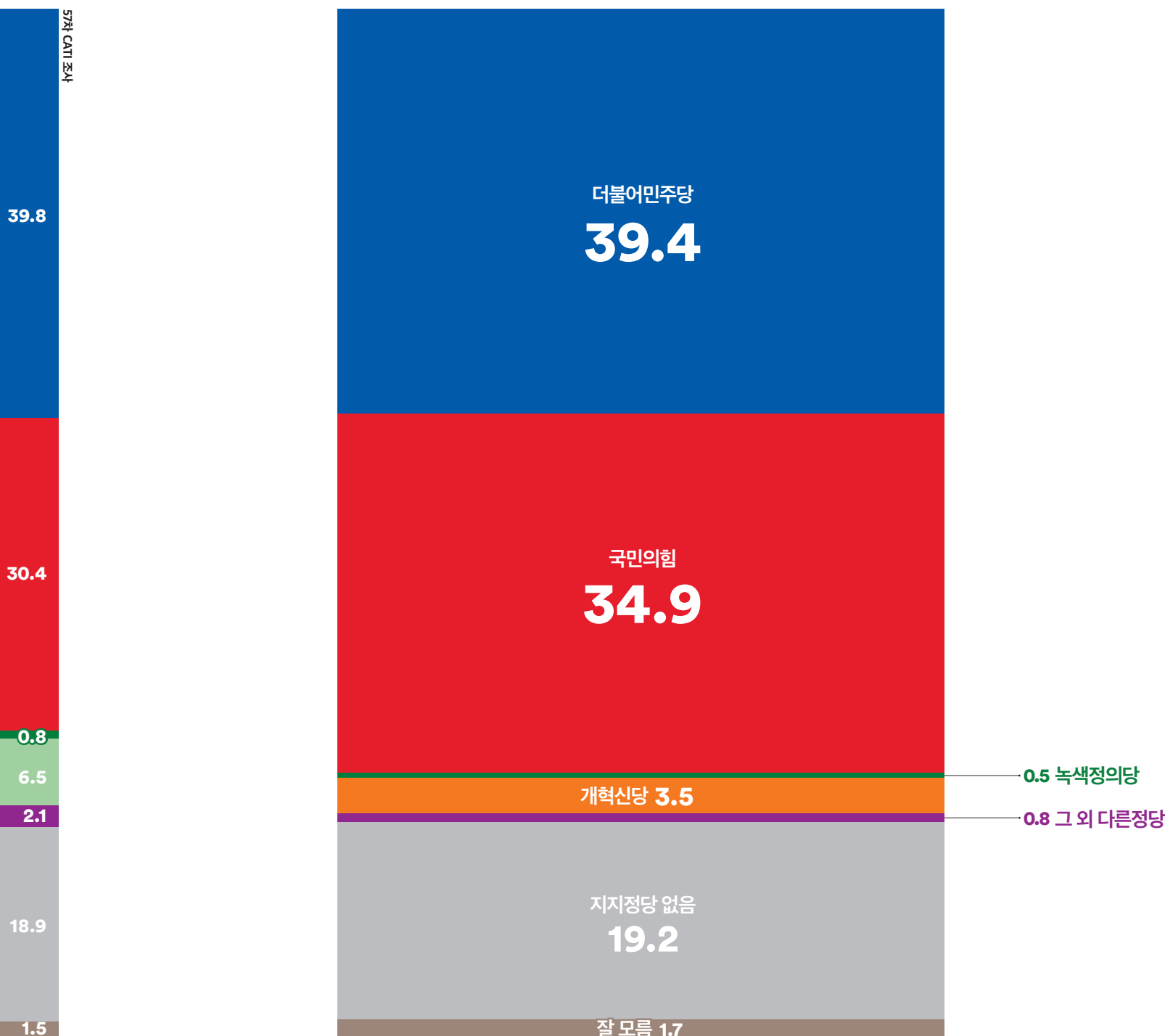


ARS


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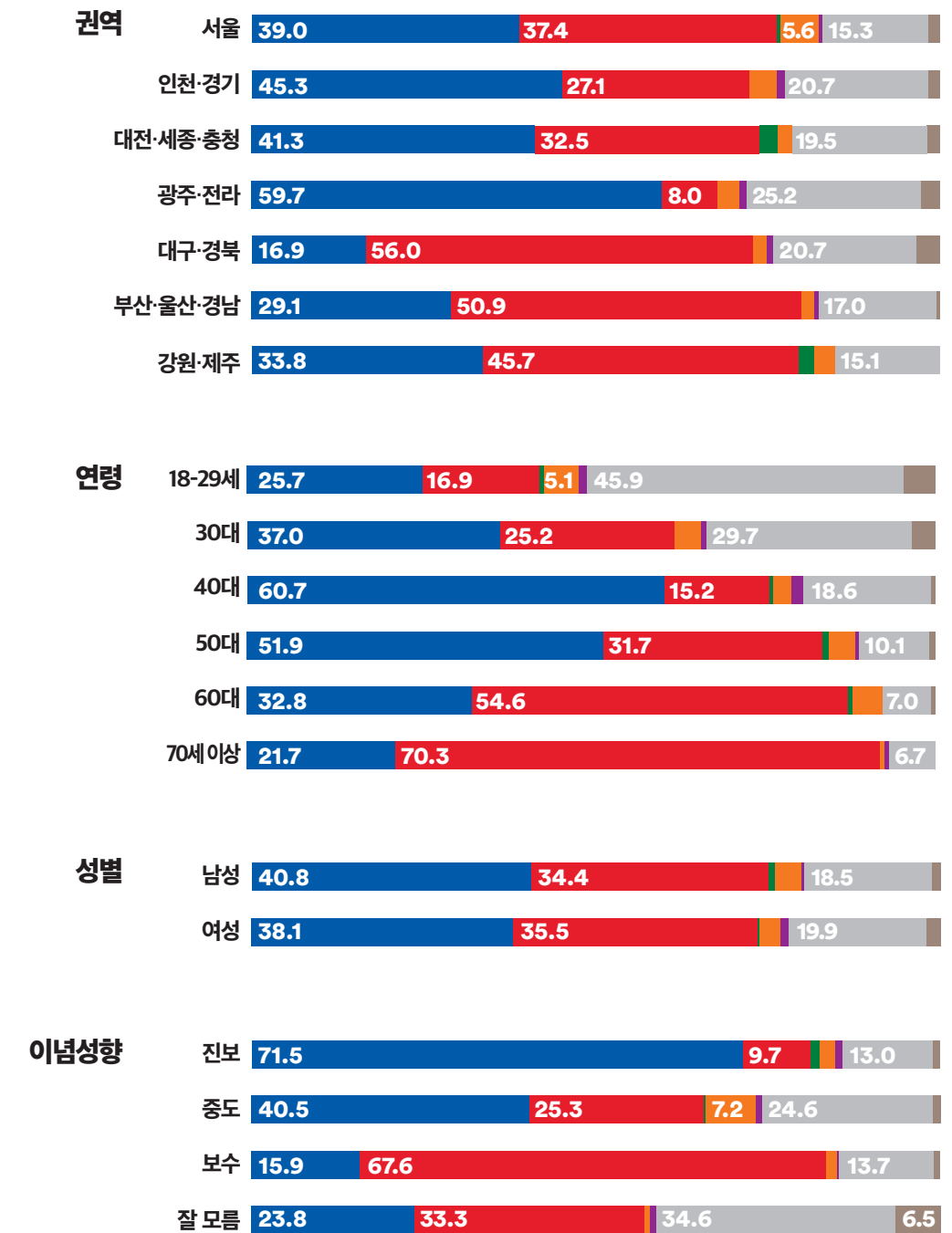


‘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’는 응답이 ‘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’는 응답 대비 앞섬 (격차 4.5%p)

지난 57차 조사 대비 ‘더불어민주당’은 0.4%p 감소, ‘국민의힘’은 4.5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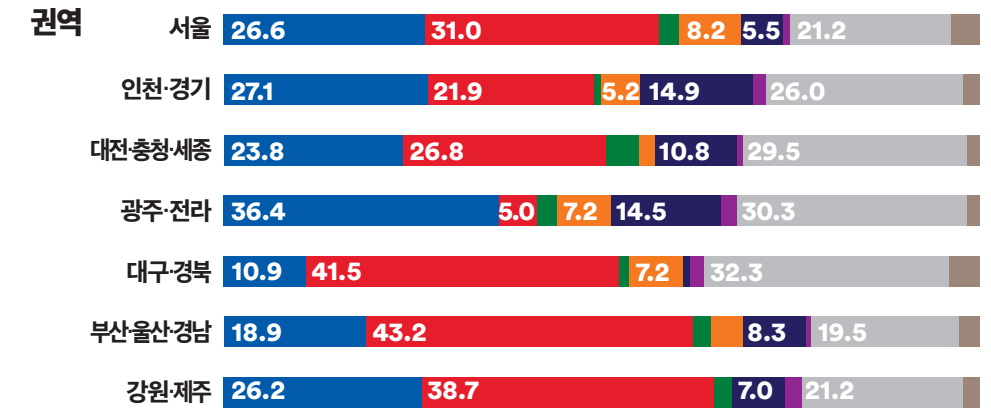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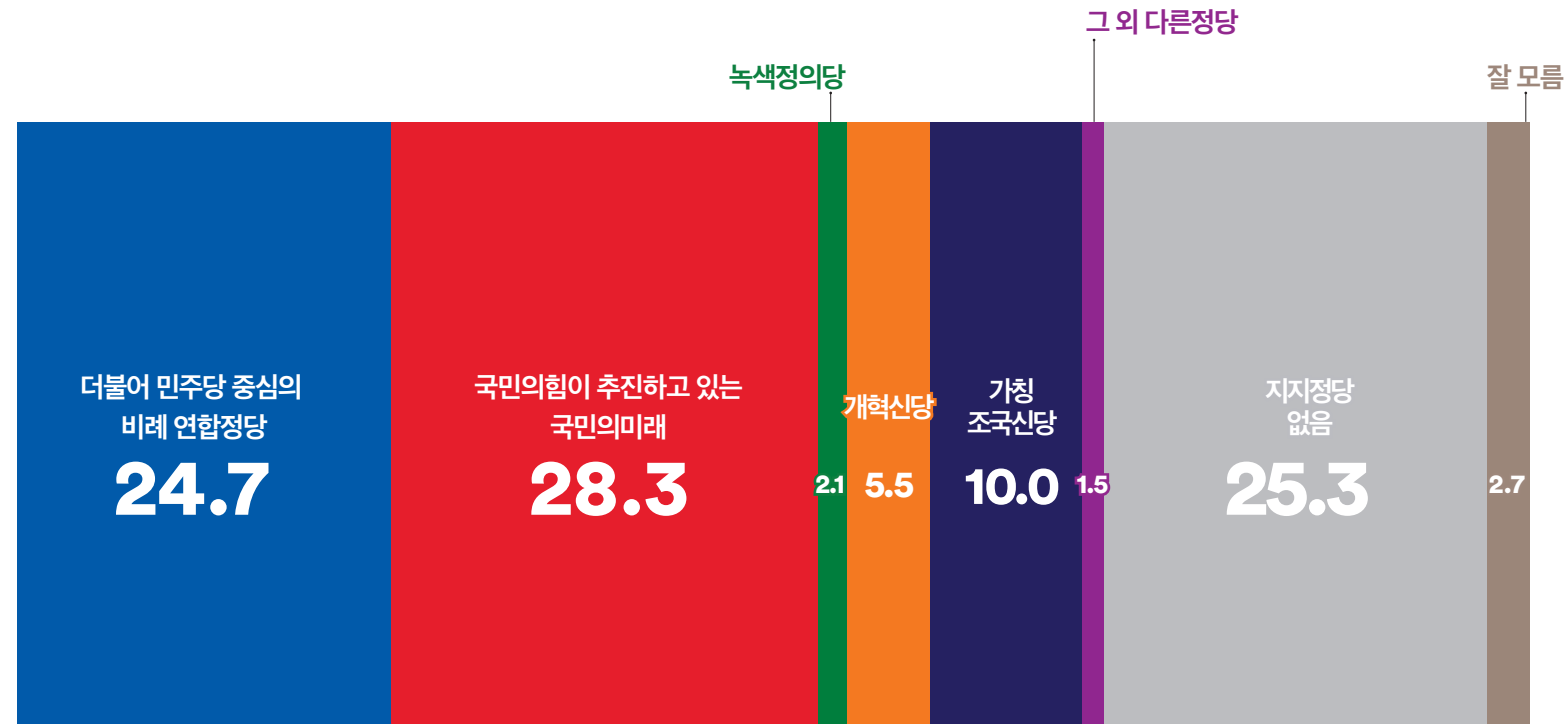
경인권, 호남권에서는 ‘더불어민주당’, TK와 PK에서는 ‘국민의힘’ 우세

‘개혁신당’이란 응답은 3.5%, 지난 57차 조사의 ‘새로운 신당들’(6.5%)의 절반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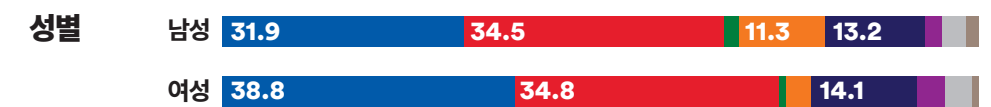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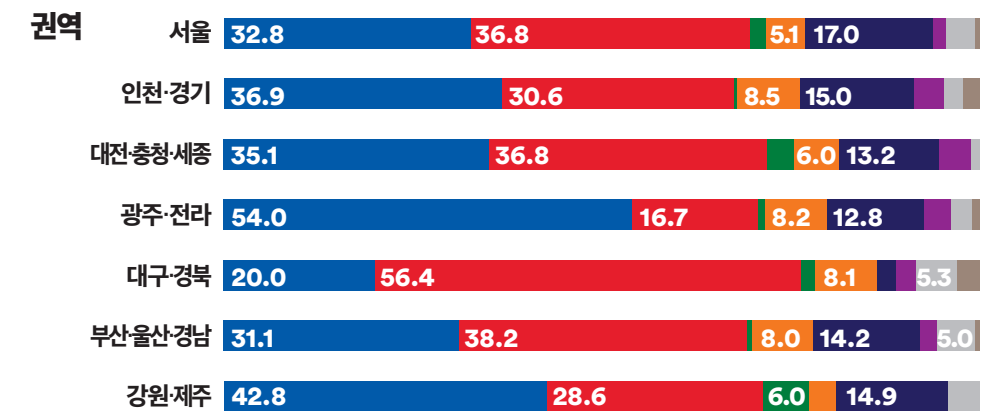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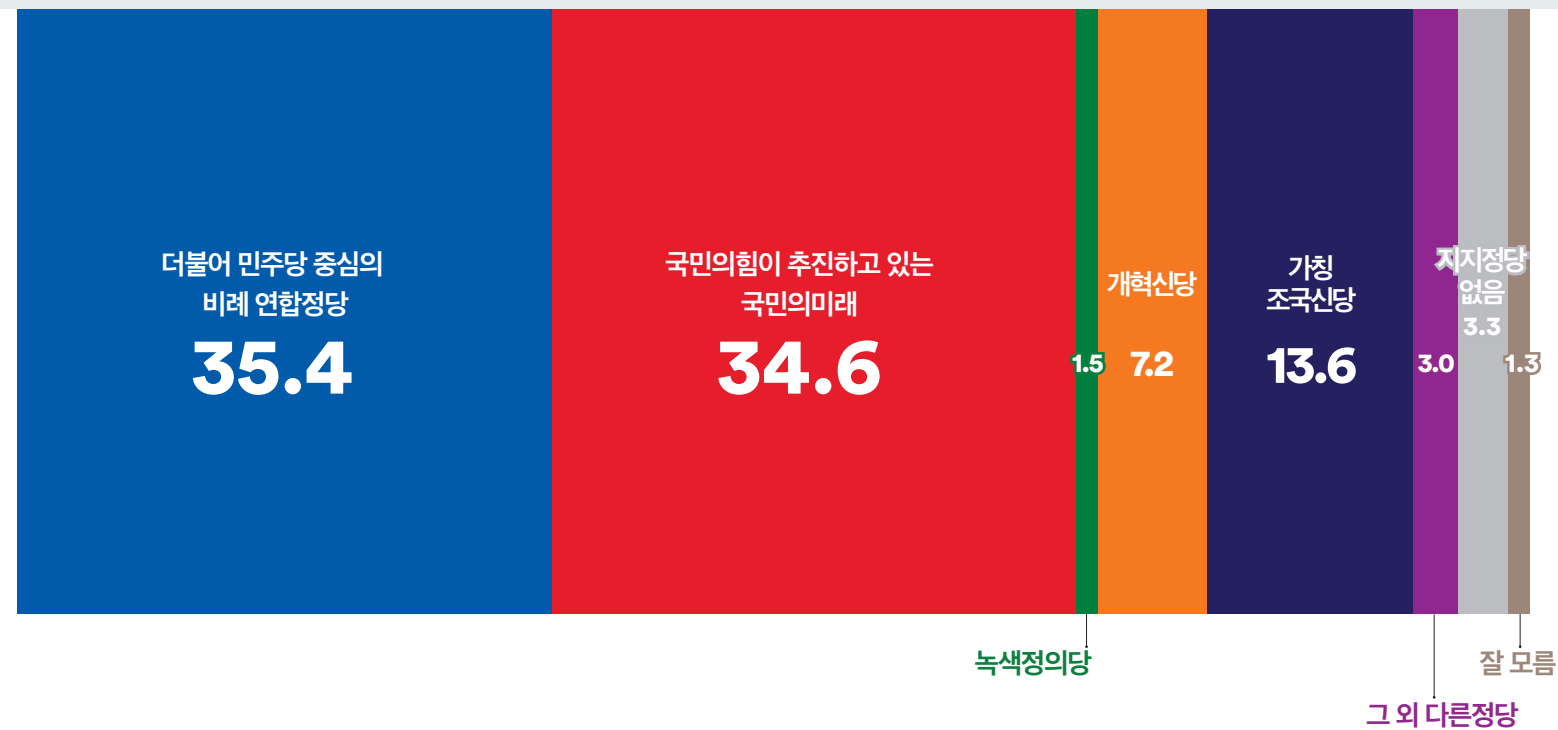


Q.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, 세력, 단체에 투표하시겠습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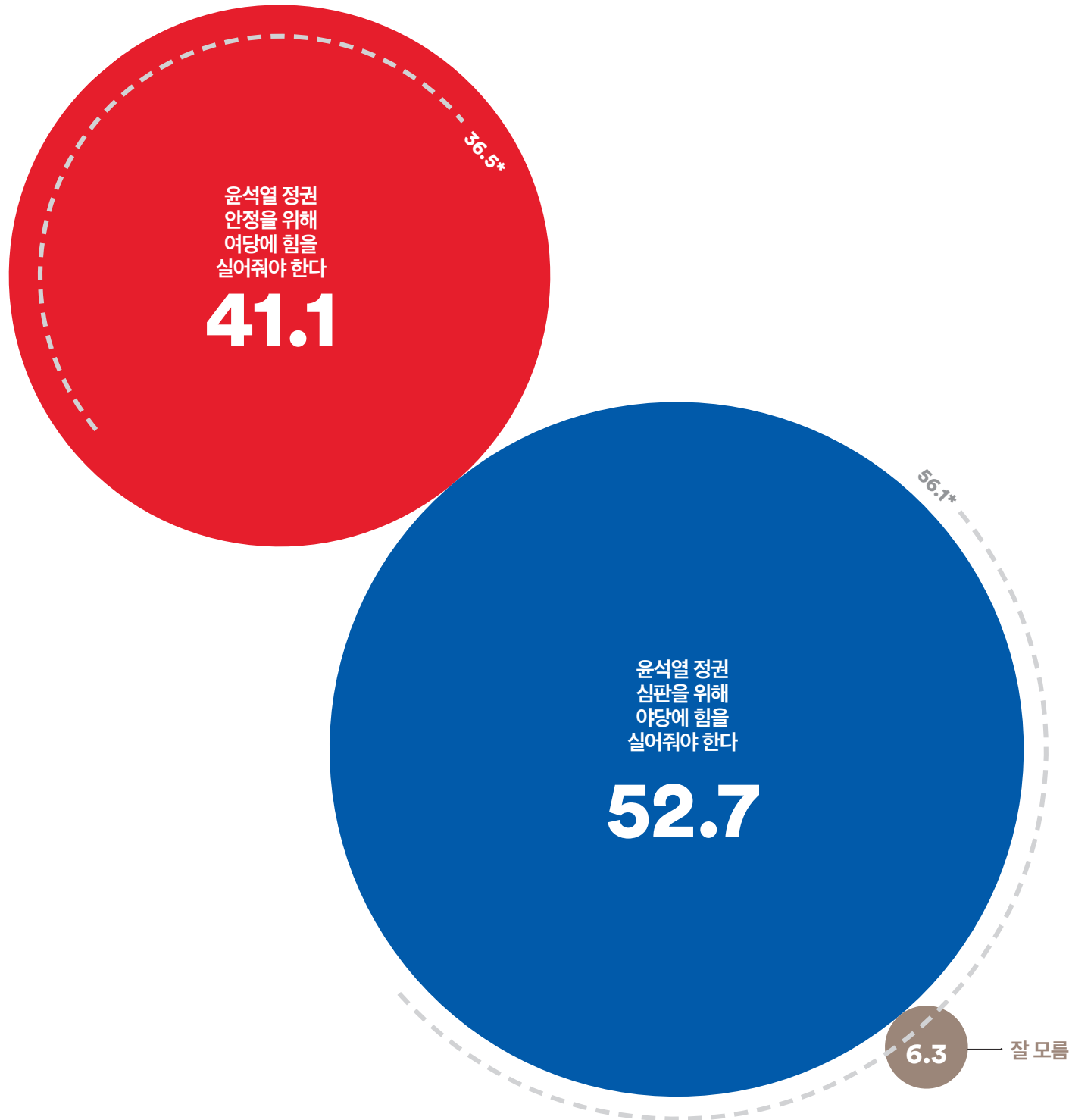
ARS



CATI 조사에서는 '국민의미래'가 앞서는 반면, ARS 조사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이 소폭 앞섬
'가칭 조국 신당'의 경우, 두 조사에서 모두 두 자릿수 지지율(CATI 10.0%, ARS 13.6%), 개혁신당은 한자릿 수 지지율을 얻음
50대 이하에서는 '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', 60대 이상은 '국민의미래'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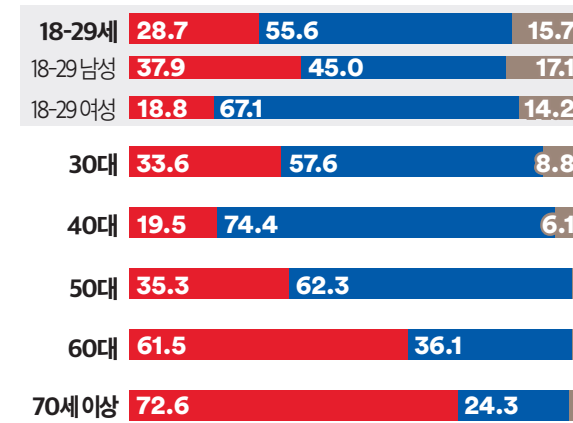
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 연합정당 ■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미래 ■ 녹색정의당 ■ 개혁신당
■ 가칭 조국신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없음 ■ 잘 모름

Q. 차기 총선에 대해,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? 보기는 순환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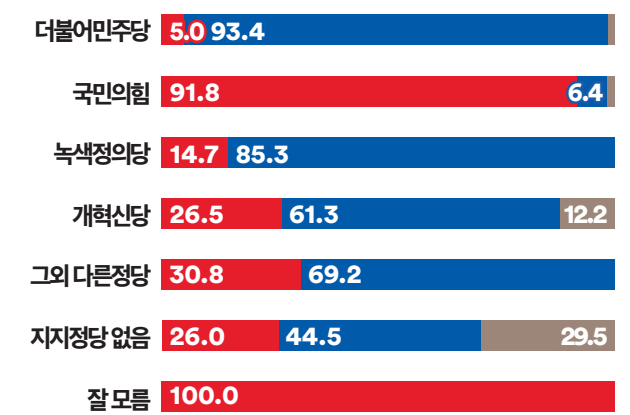


응답자 절반 이상이 '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'고 응답 (격차 11.6%p)
50대 이하 응답층 및 경인권·호남권에서는 '정권 심판론', TK·PK 및 60대 이상 응답층은 '정권 안정론' 우세
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'정권 심판론' 우세 (중도층 격차 30.9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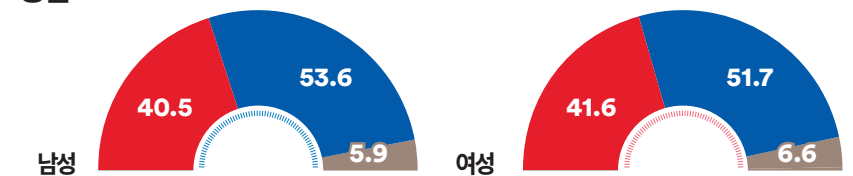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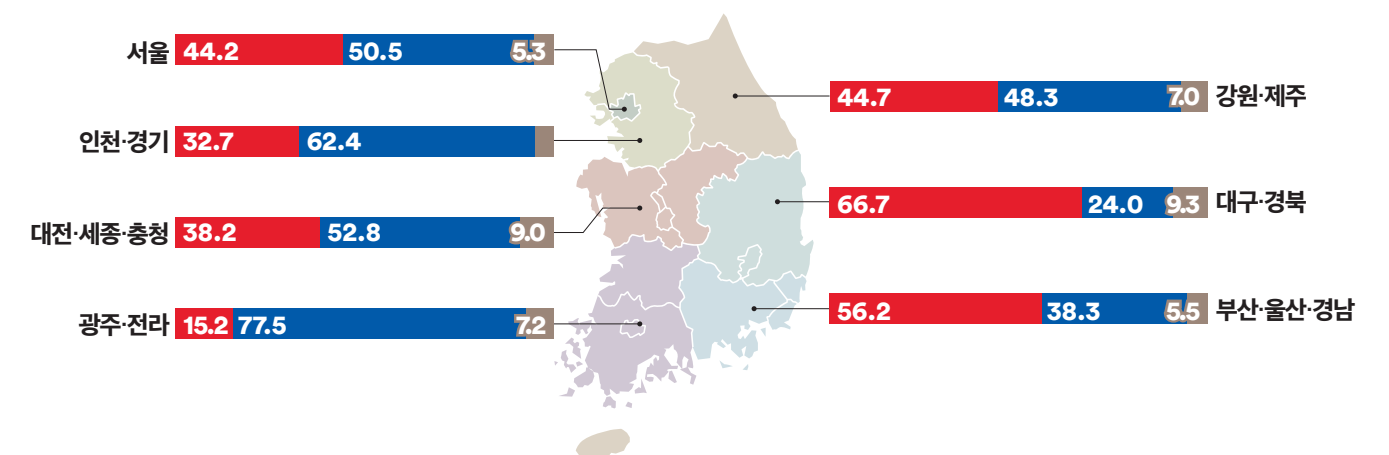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권역



* 57차 CATI 조사 수치

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|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|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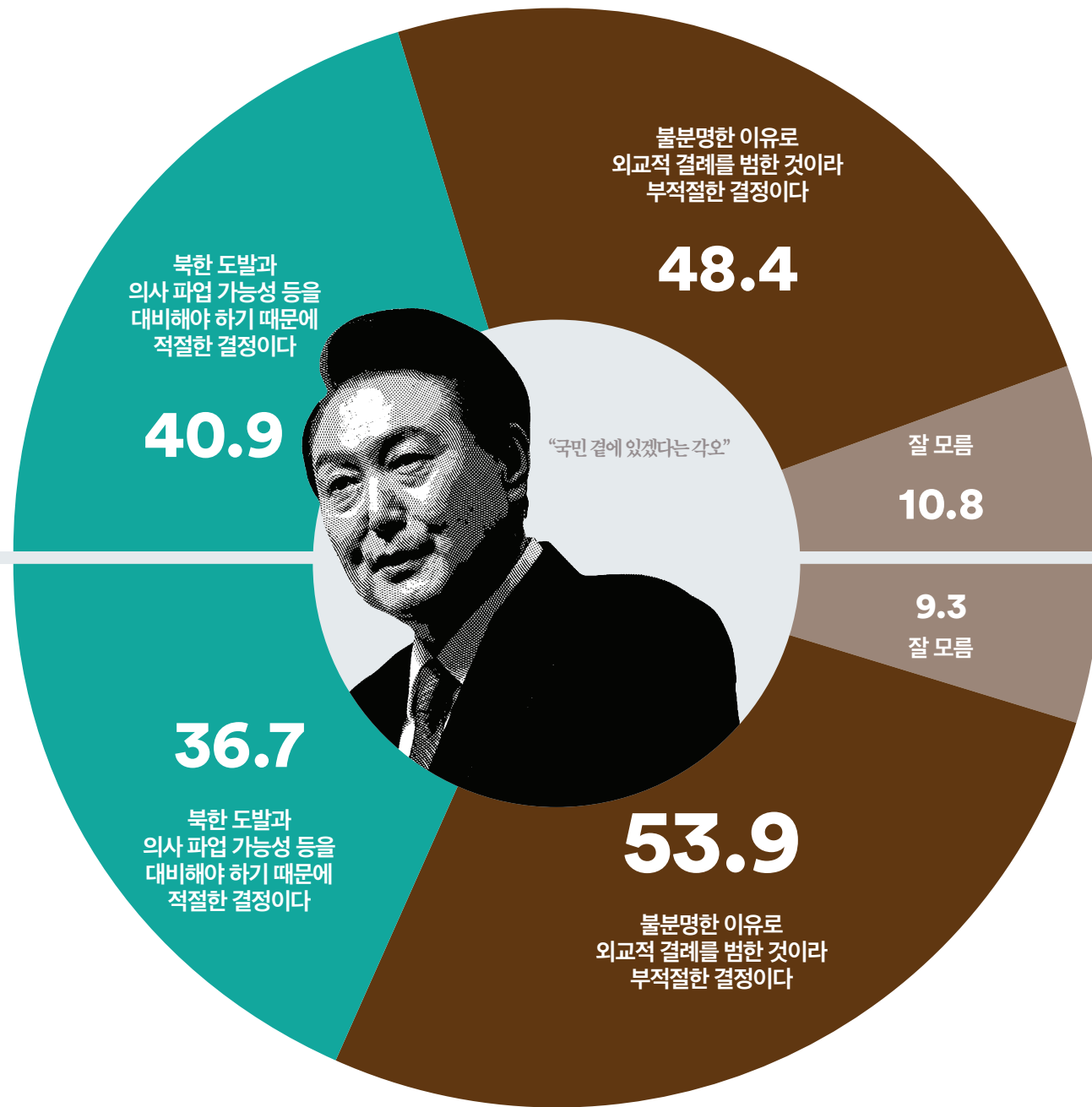
Q. 윤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 계획을 나흘 전인 14일, 전격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.
이와 관련된 다음 두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?
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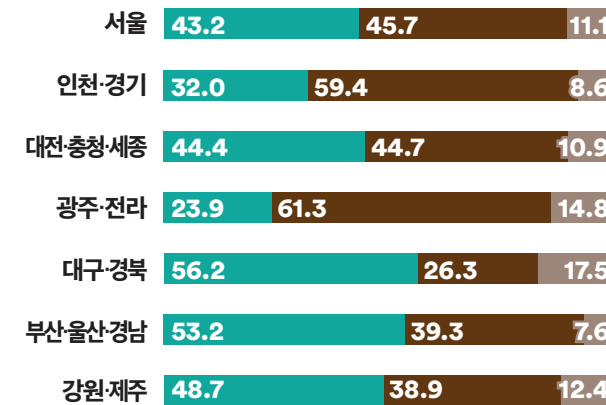
“여러 논의 끝에 주말 경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”
“윤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 행보를 하면서
국민의 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
이런 점을 다각도로 고려했다”

[2024.2.15 순방연기에 대한 헤럴드 경제 기사 발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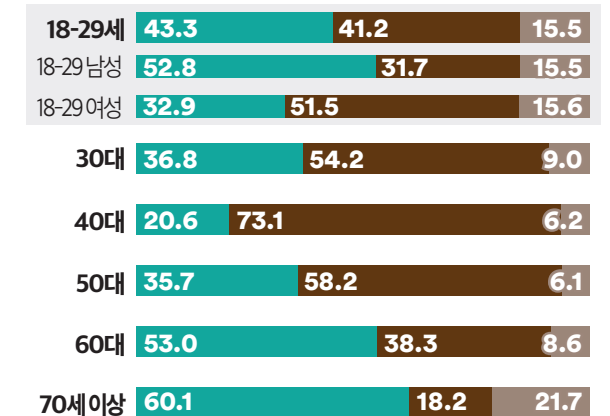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‘부적절한 결정’이란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 (격차: CATI 7.5%p, ARS 17.2%p)
두 조사의 경인, 호남권(ARS는 서울 포함)에서는 ‘부적절한 결정’이란 응답 우세, TK권은 ‘적절한 결정’이란 응답이 우세
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도 ‘부적절한 결정’이란 응답 우세 (중도층 격차 CATI 18.0%p, ARS 18.3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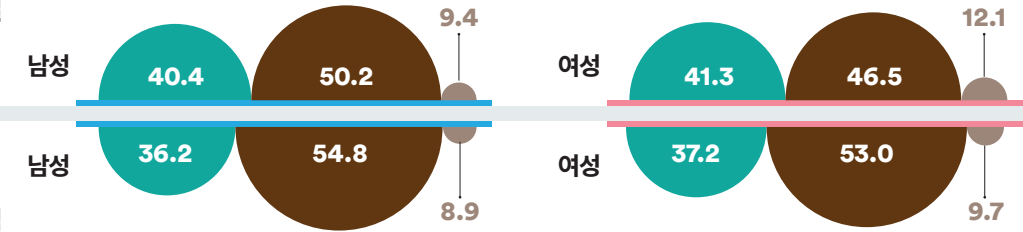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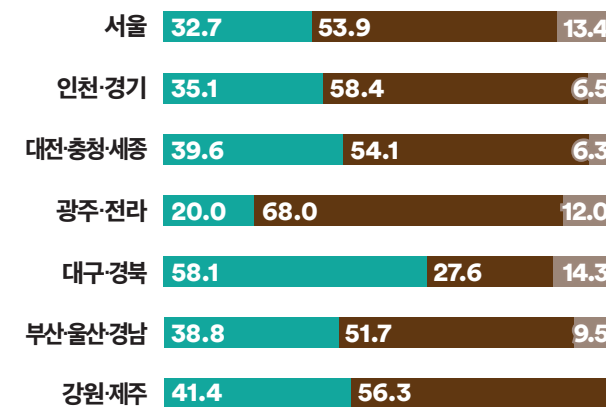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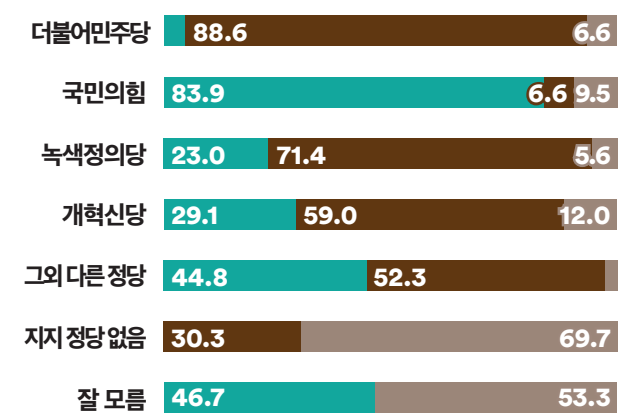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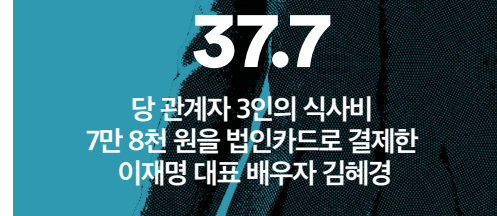
적절한 결정 부적절한 결정 모르겠다

Q. 다음 중 더 잘못된 행위를 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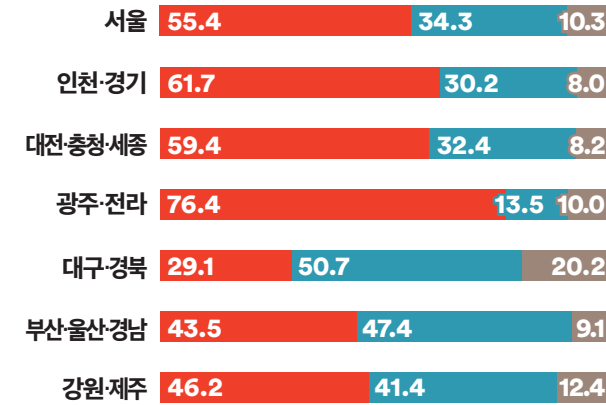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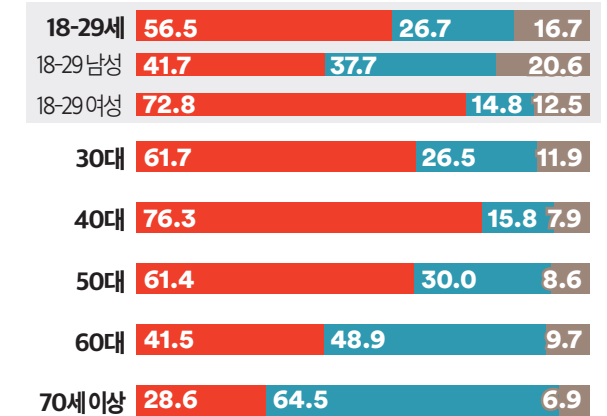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이 '명품백을 받고 안 돌려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'가 더 잘못했다고 응답, 압도적 우세
 수도권 및 충청권·호남권(ARS는 강원·제주 포함)에서도 '김건희가 더 잘못했다'는 응답 우세
 두 조사의 30~50대(CATI는 18~29세 포함)에서는 '김건희가 더 잘못했다',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'김혜경이 더 잘못했다'는 응답 우세
 무당층·진보층·중도층 모두 '김건희가 더 잘못했다'는 응답 우세 (중도층 응답 격차 CATI 36.7%, ARS 15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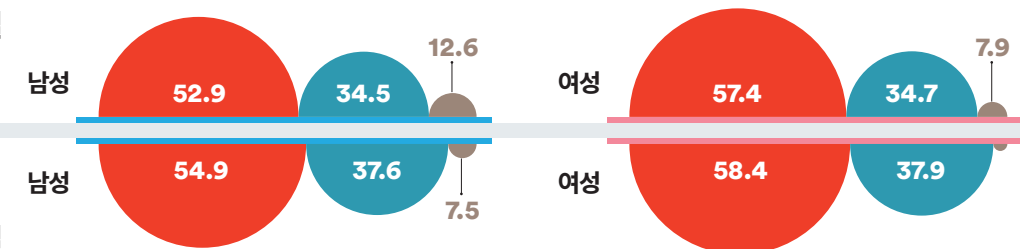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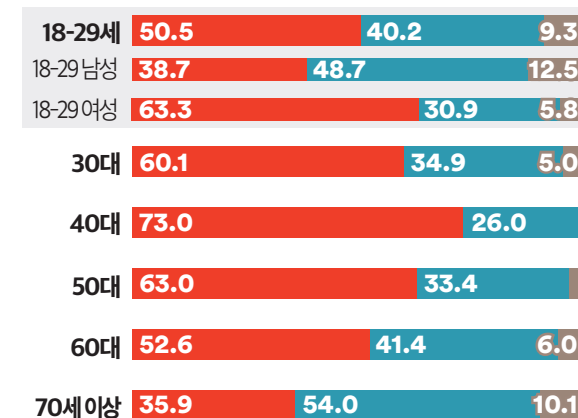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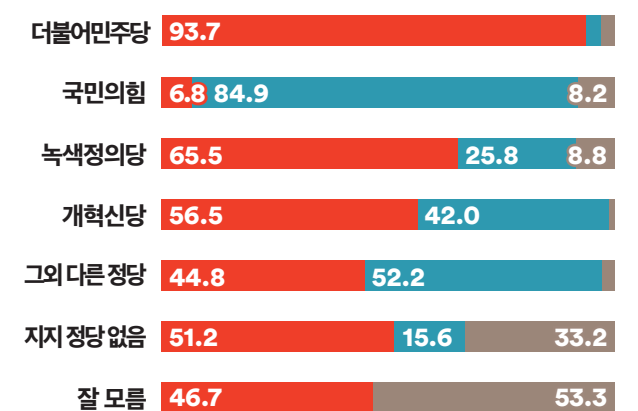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
 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
 ■ 모르겠다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402_05



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